

1999~2019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유급-무급노동시간 및 분담을 변화와 영향요인*

이 혜 정** · 송 다 영***

요약

본 연구는 1차(1999년)~5차(2019년)에 이르는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남편과 부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무급노동시간량과 무급노동분담률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난 20년간 무급노동시간량과 분담율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남편의 경우 평일 유급노동시간은 느리게 감소하였으나 주말 유급노동시간은 2014년부터 빠르게 감소하였다. 평일 가사·돌봄시간은 서서히 증가하였고, 주말에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평일 무급노동분담율은 1999년 8.5%, 2019년 15.6%로, 주말에는 같은 기간 13.5%에서 27.1%로 증가하였으며 평일의 불평등한 무급시간 분배를 주말에 벌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평일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가사·돌봄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쌍의 데이터를 Pooling하여 가사·돌봄시간과 남편 무급노동분담을 영향요인을 자원요인, 시간가용요인, 젠더이데올로기요인, 적응지체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경우 평일에는 시간가용요인이 가사시간, 돌봄시간, 무급노동분담율에 모두 유의하였으며, 자원요인·젠더이데올로기요인·적응지체요인 중 일부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자원요인 중에서는 소득변인의 유의성이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남편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남편 본인 유급노동시간과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부인의 평일 가사·돌봄노동시간에는 자원요인·시간가용요인·젠더이데올로기요인·적응지체요인의 일부 변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젠더이데올로기요인 중 남편 성역할태도는 가사시간에, 본인 성역할태도는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주말에는 가사시간에 대한 자원요인의 유의성은 사라졌고 돌봄시간에는 부인교육수준과 남편소득만이 유의했다. 남편 성역할태도, 본인 성역할태도가 가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세계에서 유급노동-무급노동 분배의 젠더불평등 원인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무급노동시간 분배, 생활시간조사, 무급노동분담율, 젠더평등

* 이 논문은 이해정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재구성하였음.

** 주저자,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aha34@naver.com)

*** 교신저자,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dsong@inu.ac.kr)

1. 서론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가 5년마다 발표될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여성과 남성의 시간 배분의 불평등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구조적 성불평등은 더 이상 없다는 한편의 주장과 젠더 갈등이 첨예한 사회적 상황에서 생활세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생활시간 배분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이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 문제의식이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변화를 추동해낸 요인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애스핑 앤더슨이 ‘끝나지 않은 혁명’에서 제기했던 이행의 계곡을 한국사회도 거쳐 가고 있는지, 그 변곡점은 어디인가 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성별(젠더) 무급노동시간 분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크게 첫째, 이론적 가설에 따라 성별 무급노동시간(가사노동·돌봄노동)의 분배의 미시적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Bonke & Esping-Andersen, 2009; Craig & Powell, 2011; Raley et al., 2012; Kuhhirt, 2012; Aassve, Fuochi & Mencarini, 2014; Evertsson, 2014; Nitsche & Grunow, 2016; Chesley & Flood, 2017)과 제도·정책 등 거시적 요인을 분석한 국가별 비교분석연구(Hofferth & Collins, 2000; Chevalier & Viitanen, 2002; Jaumotte, 2003; Morgan & Zippel, 2003; Ondrich et al., 2003; Davis & Greenstein, 2004; Fuwa, 2004; Geist, 2005; Mandel & Semyonov, 2006; Treas & Drobnič, 2010, Sayer & Gornick, 2012)들이 주를 이루었다. 성별 무급시간분배에 대한 시계열 변화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 가운데 서구 성별 시간분배의 변화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별 무급시간분배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다룬 연구(Kan, Sullivan & Gershuny, 2011; Sullivan, Gershuny & Robinson, 2018)와 젠더혁명이 지체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하여 국가별 시간분배의 변화양상을 다룬 연구가 있다(Charmes, 2019).

국내의 연구들도 이러한 해외 연구의 경향에 따라 미시적 영향요인을 다룬 연구(김수정·김은지, 2007; 은기수, 2009; 송다영, 2014; 김영미, 2014; 조성호, 2016; 허수연·김한성, 2019; 이현아·김주희, 2021)와 제도·정책 등 거시적 요인의 영향을 다룬 횡단면 연구(김영미, 2014; 안미영, 2016)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횡단면 연구는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데 기여를 했지만,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와 그 원인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빠르게 변화해왔으며 2000년대 이후 가족정책을 비롯한 사회정책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생활세계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젠더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계열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시계열을 다룬 종단적 연구는 조미라·윤수경(2014), 김소영·진미정(2016), 김진욱·권진(2017) 등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시계열연구가 많지 않은 이유는 생활시간조사(KTUS)의 짧은 역사에 기인한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남성 혹은 여성을 분리하여 산술 평균값을 다루거나 절대시간량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성별 무급시간 증감에 따른 상대적 분담을 변화를 포괄하지 못하여 실제적 분담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횡단면 연구의 한계와 시계열 분석을 했으나 남녀를 각각 분절하거나 시간량만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제한성을 보충하고자 한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시간 데이터를 부부쌍으로 결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여 생활시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무급시간량과 분담율의 영향요인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무급노동 분담율의 성별 비대칭성과 불균형은 성불평 등의 중요한 한 축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생활시간의 20년간 추이 분석을 통해 첫째, 생활시간 성별 배분 양상이 지속 혹은 변화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둘째, 생활시간 패턴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유급 장시간노동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 성별 시간배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셋째, 성별 시간배분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설명력을 한국사회에 적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향후 시간배분의 성별 균형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무급노동 분배에 대한 이론

무급노동의 성별 배분에 관한 이론은 상대적 자원이론(relative resource), 시간가용성 이론(time availability), 젠더이데올로기 이론(gender Ideology)으로 설명되어 왔다(Brines, 1994; Coltrance, 2000; Greenstein, 2000; Sullivan, Gershuny & Robinson, 2018).

상대적 자원이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무급노동 성별 분담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자원을 고려한다. 부부는 무급노동분담을 위해 자원의 크기를 교섭에 활용한다(Berker, 1985; Kamo, 1988; Kuhhirt, 2012). 배우자의 소득, 직업 상태 및 교육 수준에 따라 교섭 위치는 더 강해지고, 교섭 위치가 강해질수록 무급노동(가사노동)의 비중은 줄어든다고 보았다. 이 가설은 오랫동안 지지되어 왔다(Davis & Greenstein, 2013).

Bianchi et al.(2000)은 보유 자원이 평등해질수록 가사노동의 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Kan & Gershuny(2008)는 상대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무급노동(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 파트너 소득이 남성 파트너 소득보다 협상 영향력이 적다는 증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Killewald & Gough, 2010). 상대소득이 부부 내 가사분담에 관하여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도 보고되었다(Kuhhirt, 2012; Nitsche & Grunow, 2016). 독일의 Kùhhirt(2012)는 출산을 통제하면 가사 분업에 대한 절대 소득의 효과가 없으며 상대적 소득은 부모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규모에만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Kùhhirt, 2012). 최근에는 상대적 자원이론이 경제적 자원만을 초점화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신체적 외모와 소셜네트워크 등 다양한 자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Esping-Anderson & Schmitt, 2020).

시간가용성 이론(time availability-constraints)은 무급노동시간 분배에서 시간 제약성을 중심으로 바라본다(Bianchi, Robinson & Milkie, 2006; Raley, Bianchi & Wang, 2012). 하루 24 시간이라는 시간의 제한성에 의해 무급노동시간 분배는 투입 가능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 시간 가용성은 주로 시장노동이라는 외부적 제약과 자녀수와 자녀 연령 등과 같은 내부의 제약 요건으로 구분된다(Bianchi et al., 2006; Raley et al., 2012).

선행연구를 통해 고용된 여성과 남성 모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급노동을 덜 하고, 유급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개인이 가사노동에 보내는 시간이 적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Bianchi et al., 2006; Raley et al., 2012). 기혼 남성 무급노동시간은 본인의 시간 제약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아내의 시간 제약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Bianchi et al., 2000; Lewin-Epstein et al., 2006). 하지만 기혼여성은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해도 많은 시간을 무급노동에 할애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Coltrane, 2000; Stier & Lwein-Epstien, 2000, Craig & Powell, 2011; Chesley & Flood, 2017). 특히 자녀 출생은 부부 사이의 전통적인 가사분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주요 예측 요인으로 지적된다(Kùhhirt, 2012, Dechant et al., 2014; Grunow, Schulz, & Blossfeld, 2007). 종단 분석과 고정효과 회귀 모델을 사용한 독일 연구에 따르면 첫 자녀 출생이 성별 무급노동 분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ùhhirt, 2012). Powell & Craig(2015)는 호주에서 무자녀 부부 가구에서 무급노동 격차가 감소하지만 유자녀 가구에서는 무급노동 성별 격차가 줄지 않고 여성 돌봄노동 기여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을 비례하여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필요시간인 여가 시간과 필수시간을 줄인다(Craig, 2006). 따라서 동일한 가용 시간 제약에서 여성과 남성의 시간분담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젠더이데올로기 이론은 사회 심리학적 접근과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접근 방식으로 규범, 가치, 신념 및 태도가 무급노동의 성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한다(Davis & Greenstein,

2009; Evertsson, 2014). 상당수의 연구가 무급노동 분담에 대한 젠더이데올로기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Lewin-Epstein et al., 2006, Lachance-Grzela & Bouchard, 2010; Aassve, Fuoci, & Mencarini, 2014, Evertsson, 2014).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여성은 전통적인 여성보다 가사일을 덜 하고 유급 노동을 더 많이 하고,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남성은 전통적인 남성보다 가사일을 더 많이 한다(Aassve, Fuochi & Mencarini, 2014). 실증적으로 성역할인식과 경제적 협상 중 어느 요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역할 인식은 경제적 자원의 협상력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Greenstein, 2000). 이 이론은 부인보다 경제력이 약한 남편은 역전된 젠더 역할을 만회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더 줄이고 부인은 늘리는 젠더전시(gender display)를 적절히 설명한다(Bianchi et al., 2000; Hook, 2006).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젠더이데올로기는 다르게 작용한다. Evertsson(2014)은 평등한 젠더이데올로기를 가진 남성은 파트너 여성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평등한 젠더이데올로기는 파트너 남성의 무급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고했다. 젠더이데올로기는 시간과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Davis, 2007; Carlson & Lynch, 2013). Carlson & Lynch (2013)는 미국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젠더이데올로기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행동과 경험은 젠더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Davis(2007)는 젊은 성인의 경험에 따라 젠더이데올로기가 변화하고 이는 출신 가족에서 보유한 이데올로기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적응지체 가설(lagged adaptation)이 제기되고 있다. 적응지체 가설은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성별 무급노동 분배가 변화한다고 바라본다.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평등한 변화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급노동 분배는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 부부의 상호작용, 거시적 수준에서 새로운 형태의 일-가족 양립정책과 제도, 세금 및 혜택 시스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Sullivan, Gershuny & Robinson, 2018). 성평등의 지연에 대한 무수한 논쟁 속에서도 시계열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남성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Bianchi et al., 2006; Sandberg & Hofferth, 2005; Sayer, 2005). 국가간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캐나다, 호주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었다(Bianchi et al., 2006; Evertsson & Nermo, 2007; Kan, Sullivan & Gershuny, 2011; Sullivan, Gershuny & Robinson, 2018). Sullivan, Gershuny & Robinson(2018)는 다국적 생활시간조사(MTUS)을 이용하여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여성 무급노동시간은 장기적으로 감소했고, 남성 무급시간은 장기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연된 세대교체 모델을 증명하고 있다.

2) 선행 연구

국내 연구자들도 상대적 자원이론, 시간가용성 이론, 젠더이데올로기 이론에 따라 영향요인 분석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김수정·김은지, 2007; 은기수, 2009; 송다영, 2014; 조미라·윤수경, 2014; 김소영·진미정, 2016; 김진옥·권진, 2017; 허수연·김한성, 2019; 이현아·김주희, 2021). 주로 생활시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에 따라 가사노동은 무급노동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나 최근에는 무급노동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분리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이 횡단면 연구이며, 시계열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조미라·윤수경(2014), 김소영·진미정(2016), 김진옥·권진(2017)의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시계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조미라·윤수경(2014)은 생활시간조사 1999년, 2004년, 2009년의 3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 55세 이하 유배우자 및 유자녀 남성의 집안일 시간과 자녀양육시간을 구분하여 교육수준별로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년간 남성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은 집안일 시간 증가폭이 큰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은 자녀양육시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진미정(2016)은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25세~44세 미취학 자녀가 있는 부부를 선정하여 조사연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일 여성의 가사(가사+돌봄)노동시간에 유의한 변인은 모든 조사연도에 본인 주당근로시간이 유의하고 여성소득비와 부부의 성역할태도조합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본인 주당근로시간, 남편 주당근로시간교육수준, 소득비기 일부 조사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경우, 주중에는 본인 주당근로시간의 영향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부인 주당근로시간, 부부 교육수준이 일부 조사연도에 유의하였다. 주말에는 일부 조사연도에 부부 교육수준,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옥·권진(2017)은 유자녀 기혼 남성 무급노동시간의 증가하고 있으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주말 자녀돌봄시간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맞벌이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2014년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고, 평등한 성역할인식이 기여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1]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년도)	종속변수	교섭가설	시간가용가설	젠더가설	적응지체 가설
횡단면연구	김수정·김은지 (2008)	맞벌이부부 가사노동	남성가사: 학력(-) 유급노동시간(-) 여성가사: 상대소득(-)			
	허수연(2008)	맞벌이부부 가사노동	남성가사: 본인노동시간(-) 배우자노동시간(+) 전통적 성역할태도(-) 여성가사: 본인노동시간(-) 배우자노동시간(+) 본인소득(-)			
	은기수(2009)	기혼부부 가사노동	남성가사: 상대노동시간(-) 여성노동시간(+) 여성소득(+) 여성가사: 상대노동시간(-) 본인소득(-)			
	윤자영(2010)	여성 가사노동, 돌봄노동	여성가사: 보육서비스(-) 시간당임금률(-) 저학력*임금률(-) 여성돌봄: 보육서비스(-) 시간당임금률(-) 배우자주당소득(+) 저학력*임금률(-)			
	송다영(2014)	맞벌이여성·남성 홀벌이남성 가사노동(기여도)	맞벌이 여성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기여도> 맞벌이남성, 홀벌이남성 근로시간, 근로일수, 노동시장 내 지위 < 젠더요인			
	조성호 (2016)	맞벌이부부 유급노동시간 돌봄시간 가사시간	남성가사: 본인노동시간(-) 배우자노동시간(+) 배우자임금률(+) 미취학자녀(+), 취학자녀(-) 성인자녀(-) 부모·기타(-) 남편연령(+, 비선형) 부인가사: 배우자임금률(+), 배우자학력(대졸이상+) 미취학(+) 취학자녀(+), 부모·기타(-) 남편돌봄: 학력(대졸이상, +) 배우자학력(대졸이상, +) 미취학자녀(+) 취학자녀(-) 성인자녀(-) 부모 및 기타(-) 연령(+, 비선형) 부인돌봄: 임금률(-) 학력(대졸이상, -) 배우자임금률(+), 취학자녀(+) 부모·기타(-) 연령(-, 비선형)			
	허수영·김한성 (2019)	맞벌이부부 부인, 남편 가사시간, 노동분담률	부인가사: 유급시간(-) 남편유급시간(+) 남편가사: 유급시간(-) 부인소득비(+), 남편평등성역할태도(+) 노동분담율: 부인유급시간(+), 남편유급시간(-) 부인소득비(+) 남편평등성역할태도(+)			
시 계 열 연구	이현아·김주희 (2021)	남성 세대별 가사노동시간	베이비붐세대: 경제적 효율성가설, 성역할태도 가설, 요구반응가능성 가설 Y세대: 경제적 효율성가설, 성역할태도 가설, 시간가용성 가설, 요구반응 가능성 가설 X세대: 시간가용성 가설과 요구반응가능성 가설, 적응지체 가설			
	조미라·윤수경 (2014)	남성 가사노동, 돌봄노동	※1999년, 2004년, 2009년 10년간 남성 가사노동시간 증가. 저학력남성은 가사노동시간 증가 크고 고학력남성은 돌봄시간 증가 큼			
	김소영·진미정 (2016)	부인남편 가사노동시간	※2004년, 2009년, 2014년, 주중·주말 구분하여 조사연도별 분석 부인가사: 주중/ 주말 분석, 본인주당근로시간 유의성이 크게 나타남. 본인소득비(2004/2009, -) 성역할태도·부부교육수준 일부 유의 남편가사: 본인 주당근로시간, 부인주당근로시간 유의성이 확인되고 부부교육수준·성역할태도 일부 조사연도에 유의			
	김진욱·권진 (2017)	남성 무급노동시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무급노동: 맞벌이여부, 연령, 성역할인식, 소득 2014년 맞벌이여부 유 의하지 않고 성역할 인식 유의			

* 자료: 이혜정·송다영(2022)에서 재구성

이처럼 기존 선행연구들은 특정 시기의 무급노동시간을 분석한 횡단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시계열 변화를 포함하더라도 남녀를 분리하여 분석하거나 부부단위내 부인의 무급시간변화를 반영한 무급노동 분담율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에 참여한 부부 쌍을 매칭하여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무급노동시간을 분석하고, 부부간 무급노동 분담율을 확인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시계열 연구를 통해 지난 20년간의 변화의 추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24시간 시간 활용 현황 및 의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파악하여 왔다. 생활시간조사는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time diary)에 2일 동안 기입하는 응답자 직접 기입(after-coded diary)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간일지방식 조사는 성불평등과 삶의 질에 관련한 분석 및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Godbey & Robinson, 1997; Charmes, 2019).

본 연구는 1999년 실시된 1차 생활시간조사에서부터 2019년에 이루어진 5차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남편과 부인 모두 20세 이상 59세 미만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의 병합을 진행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만 10세 이상의 모든 세대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데이터의 구조는 모든 구성원이 종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중 남성과 여성 시간일지를 나누어 횡적 병합을 실시하여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가구 데이터에서 자녀 정보 및 가구 정보를 추출하여 결합하였다. 1999년 병합데이터는 평일 3,544쌍, 주말 2,316쌍이다. 2004년 병합데이터는 평일 3,186쌍, 주말 1,575쌍이다. 2009년 병합데이터는 평일 2,244쌍, 주말 1,546쌍이다. 2014년 병합데이터는 평일 3,176쌍, 주말 2,018쌍이다. 2019년 병합데이터는 평일 2,975쌍, 주말 1,949쌍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첫째, 생활시간 중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변화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대별, 교육수준별, 맞벌이 여부별, 교육수준별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가

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분담률의 변화를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20년 동안 어떠한 추이로 변화했는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로 토빗회귀 분석(Tobit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시간 변수의 경우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종속변수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은 값이 0인 좌측 절단(censored)된 분포를 이루고 있어 계수의 저평가를 막고 최소자승법에 비해 더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토빗 회귀분석이 적절하다(Long, 1997). 토빗회귀분석은 2004년~2019년 데이터를 풀링(pooling)하여 분석하였다. 1999년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 독립변수가 있어 제외하였다. 토빗회귀분석에서 맞벌이 여부는 주당근무시간과 상관관계가 높아 제외하였다.

3) 변수구성

본 연구의 변수는 [표 2]와 같다. 에서 종속변수는 부부쌍으로 구성된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과 남편 무급노동시간분담율 등이다. 가사노동시간은 가사노동시간과 관련된 이동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돌봄노동시간은 돌봄노동시간과 이동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무급노동시간은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의 합산값이다. 남편 무급노동시간 분담율은 남편무급노동시간/(남편무급노동시간+부인무급노동시간)*100으로 계산하였다.

독립변수는 각 이론을 설명하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먼저 자원가설요인으로는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과 부인의 월평균소득, 남편의 상대소득 변수를 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0, 대학이상=1로 코딩하였다. 월평균소득은 소득구간으로 코딩되어 있는 것을 구간의 평균값으로 재코딩하였다. 상대소득은 남편소득/(남편소득+부인소득)으로 계산하였다. 시간가용요인으로는 남편 주당근무시간, 부인 주당근무시간, 미취학자녀유무 변수를 투입하였다. 주당근무시간은 주업시간과 부업시간을 합한 값으로 코딩하였다. 미취학자녀없음=0, 미취학자녀 있음=1로 코딩하였다.

성역할태도는 성별 고정역할에 대한 태도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1, 찬성하는 편이다=2, 반대하는 편이다=3, 매우 반대한다=4로 값이 커질수록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응지체가설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세대변수, 조사연도를 투입하였다. 중장년=0으로 40~59세까지 코딩하였고 청년=1로 20~39세까지 코딩하였다.

[표 2] 분석 변인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		무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돌봄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가정관리 시간+관련 이동시간
		돌봄노동시간	돌봄 시간+관련 이동시간
		남편무급노동시간 부담율	{남편무급시간/(남편무급시간+부인무급시간)}*100
독립 변수	상대적 자원 가설	남편·부인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0, 대학이상=1
		남편·부인 월평균소득	각 구간의 평균값을 부여함
		상대소득	남편소득/(남편소득+부인소득)
	시간가용 가설	남편·부인 주당근무시간	주당 주업시간+주당 부업시간
		미취학자녀여부	없음=0, 있음=1
	젠더가설	성역할태도	매우찬성=1, 조금찬성=2, 조금반대=3, 매우반대=4
	적응지체가설	세대	중장년세대=0(40~59세), 청년세대=1(20~39세)
		조사연도	0=2004, 1=2009, 2=2014, 3=2019*

* 1999년 자료에는 소득, 성역할태도 변수 없어서 조사연도 변수에서 제외함.

4.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인

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은 [표 3]과 같다. 평일과 주말 인구사회학적 구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평일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평균연령은 20년 사이 큰 변화가 확인되었다. 남편 평균연령은 1999년 35.2세였으나 2019년 42.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평균연령은 1999년 31.9세에서 2019년 40.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로 구분할 경우 남편은 청년세대(20~49세 이하)가 1999년 85.0%였으나 2019년 34.9%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경우 청년세대가 1999년 94.1%였으나 2019년 48.4%로 나타났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인

단위: 명, 세, %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표본수			3,544	2,316	3,186	1,575	2,244	1,546	3,176	2,018	2,975	1,949
연령 세대	남편	평균연령	35.2	35.1	37.9	35.6	39.9	39.5	40.4	40.3	42.3	42.4
		청년	3,014 (85.0)	1,984 (85.7)	1,977 (62.1)	1,275 (81.0)	1,059 (47.2)	777 (50.3)	1,396 (44.0)	892 (44.2)	1,039 (34.9)	633 (32.5)

	부인	중장년	530 (15.0)	332 (14.3)	1,209 (37.9)	300 (19.0)	1,185 (52.8)	769 (49.7)	1,780 (56.0)	1,126 (55.8)	1,936 (65.1)	1,316 (67.5)
		평균연령	31.9	32.0	35.0	32.7	37.1	36.7	37.8	37.9	40.0	40.0
		청년	3,335 (94.1)	2,168 (93.6)	2,444 (76.7)	1,469 (93.3)	1,401 (62.4)	1,045 (67.6)	1,920 (60.5)	1,242 (61.5)	1,439 (48.4)	893 (45.8)
		중장년	209 (5.9)	148 (6.4)	742 (23.3)	106 (6.7)	843 (37.6)	501 (32.4)	1,256 (39.5)	776 (38.5)	1,536 (51.6)	1,056 (54.2)
교육 수준	남편	고졸이하	2,101 (59.3)	1,389 (60.0)	1,550 (48.7)	743 (47.2)	977 (43.5)	687 (44.4)	958 (30.2)	616 (30.5)	708 (23.8)	476 (24.4)
		대학 이상	1,443 (40.7)	925 (39.9)	1,636 (51.3)	831 (52.8)	1,230 (54.8)	840 (54.3)	2,162 (68.0)	1,365 (67.6)	2,187 (73.5)	1,419 (72.8)
	부인	고졸이하	2,642 (74.5)	1,756 (75.8)	2,010 (63.1)	936 (59.4)	1,231 (54.9)	805 (52.1)	1,119 (35.2)	705 (34.9)	818 (27.5)	498 (25.6)
		대학이상	902 (25.5)	556 (24.0)	1,172 (36.8)	638 (40.5)	1,006 (44.8)	738 (47.7)	2,033 (64.5)	1,303 (64.6)	2,895 (71.5)	1,419 (73.4)
소득*	남편평균		-	-	164.1	163.82	261.5	263.1	328.3	327.0	392.0	401.0
	부인평균		-	-	26.6	23.7	66.2	63.1	90.9	90.6	140.0	13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35 (34.8)	809 (34.9)	1,409 (44.2)	580 (36.8)	1,092 (48.7)	742 (48.0)	1,580 (49.7)	992 (49.2)	1,566 (52.5)	888 (45.6)
	비맞벌이		2,309 (65.2)	1,507 (65.1)	1,691 (53.1)	923 (58.6)	1,152 (51.3)	804 (52.0)	1,596 (50.3)	1,026 (50.8)	1,409 (47.4)	1,061 (54.4)
미취학 자녀 유무	있음		3,544 (100)	2,316 (100)	2,319 (72.8)	1,556 (98.8)	1,264 (56.3)	890 (57.6)	1,716 (54.0)	1,098 (54.4)	1,375 (46.2)	883 (45.3)
	없음		0 (0.0)	0 (0.0)	867 (27.2)	19 (1.2)	980 (43.7)	656 (42.4)	1,460 (46.0)	920 (45.6)	1,600 (53.8)	1,066 (54.7)
주당근무 시간	남편		55.07	54.71	51.39	51.51	51.09	52.15	50.54	50.27	47.76	47.88
	부인		12.27	16.66	20.55	16.38	22.24	22.03	19.26	19.44	20.90	20.70
성역할 태도*	남편		-	-	2.43	2.41	2.48	2.45	2.56	2.55	2.85	2.86
	부인		-	-	2.76	2.76	2.77	2.78	3.05	3.07	3.31	3.33

* 1999년 자료에는 소득, 성역할태도 변수 없음

남편 교육수준은 대학이상 비율이 1999년도에는 40.7%, 2004년 51.3%, 2009년 54.8%, 2014년 68.0%, 2019년 73.5%로 나타났다. 부인 교육수준은 대학이상이 1999년 25.5%였으나 2004년 36.8%, 2009년 44.8%, 2014년 64.5%, 2019년 71.5%로 나타나 빠르게 높아졌다. 남편 평균소득(평일)은 2004년 164.1만원에서 2009년 261.5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2014년 328.3만원, 2019년 392.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인 평균소득(평일)은 2004년 26.6만원에서 2009년 66.2만원, 2014년 90.9만원, 2019년 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비율은 1999년도에는 34.8%, 2004년 44.2%, 2009년 48.7%, 2014년 49.7%, 2019년 52.5%로 나타났다. 2019년에 맞벌이가 과반을 넘어선 것은 상징적이나, 아직도 자녀 양육이 이

루어지는 생애주기에 맞벌이 비율의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당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남편은 1999년 55.07시간, 2004년 51.39시간, 2009년 51.09시간, 2014년 50.54시간, 2019년 47.76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되었다. 부인은 1999년 12.27시간, 2004년 20.55시간, 2009년 22.24시간, 2014년 19.26시간, 2019년 20.9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유무는 1999년도에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율(평일)이 100%, 2004년 72.8%, 2009년 56.3%, 2014년 54.0%, 2019년 46.2%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를 살펴보면 남편 평균값은 2004년 2.43, 2009년 2.48, 2014년 2.56, 2019년 2.85로 나타나 변화 속도는 더뎠다. 반면 부인 평균값(평일)은 2004년 2.76에서 2009년 2.77, 2014년 3.05, 2019년 3.31로 나타나 2014년을 기점으로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1999~2019년 생활시간 변화추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남편과 부인 생활시간 변화추이는 [표 4]와 같다. 남편의 평일 유급노동시간은 1999년 548.8분에서 2019년 537.6분으로 더딘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다. 같은 기간 가사노동시간은 14.5분에서 27.0분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돌봄노동시간은 25.9분에서 30.9분으로 증가하였다. 평일 남성 무급노동분담율은 1999년 8.5%에서 2019년 15.6%로 증가하였다.

주말, 남편 유급노동시간은 1999년 353.4분에서 2019년 176.8분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말 가사노동시간은 29.7분에서 83.0분으로 증가하였다. 돌봄노동시간은 1999년 40.6분에서 2019년 61.7분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따라서 주말 남성 무급노동분담율은 1999년 13.5%에서 2019년 27.1%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평일, 부인 유급노동시간은 1999년 146.8분에서 2019년 223.4분으로 증가하였다. 평일 부인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247.6분에서 2019년 193.7분으로 감소하였고, 돌봄노동시간은 1999년 184.1분에서 2019년 149.9분으로 감소하였다. 주말, 부인 유급노동시간은 1999년 99.4분에서 2019년 54.8분으로 감소하였다. 주말 부인 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245.3분에서 2019년 228.0분, 돌봄노동시간은 1999년 156.1분에서 2019년 109.29분으로 감소하였다.

[표 4]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생활시간

			단위: 분, %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평일	남편	유급	548.8	537.0	523.7	546.9	537.6
		가사	14.5	15.6	20.5	19.6	27.0
		돌봄	25.9	24.3	28.4	29.2	30.9
	부인	유급	146.8	187.2	215.3	202.5	223.4
		가사	247.6	193.7	193.7	193.7	193.7

주말		가사	247.6	225.5	208.9	209.7	193.7
		돌봄	184.1	161.5	155.2	163.5	149.9
	남편무급노동분담율		8.5	9.6	12.0	11.6	15.6
	남편	유급	353.4	278.6	235.6	192.9	176.8
		가사	29.7	41.0	53.2	67.6	83.0
		돌봄	40.6	51.7	52.6	60.1	61.7
	부인	유급	99.4	74.7	87.1	51.8	54.8
		가사	245.3	228.3	238.7	235.4	228.0
		돌봄	156.1	170.1	125.7	122.8	109.2
	남편무급노동분담율		13.5	17.1	19.9	23.5	27.1

맞벌이와 비맞벌이 생활시간을 비교해보면(표 5) 평일에는 맞벌이 남편 유급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가사·돌봄노동시간이 비맞벌이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지만 무급노동분담율은 높아 1999년 11.7%에서 2019년 20.3%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맞벌이 부인 가사·돌봄노동시간이 비맞벌이 부인보다 상당히 짧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말에는 양상이 달라지는데, 비맞벌이 남편 가사·돌봄노동시간이 맞벌이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주말에 별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비맞벌이 남편 주말 무급노동분담율이 맞벌이 남편에 비해 약간 낮은데 비맞벌이 부인 가사·돌봄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표 6).

[표 5] 평일 맞벌이 여부별 생활시간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맞벌이	남편	유급	575.0	547.6	536.1	553.0	550.5
		가사	13.9	17.1	19.8	20.2	28.2
		돌봄	25.9	24.0	26.7	28.6	30.0
	부인	유급	380.9	402.8	421.6	396.7	404.7
		가사	175.8	165.4	151.6	149.7	136.7
		돌봄	118.2	88.7	81.7	94.7	91.4
	남편무급노동분담율		11.7	13.2	15.6	15.1	20.3
비맞벌이	남편	유급	534.7	528.5	512.0	541.0	523.3
		가사	14.9	14.4	21.1	19.0	25.7
		돌봄	25.9	24.6	30.0	29.8	32.0
	부인	유급	21.6	16.2	19.9	10.3	21.9
		가사	286.0	273.3	263.1	269.0	257.0
		돌봄	219.4	219.2	225.0	231.6	214.9
	남편무급노동분담율		6.8	6.8	8.7	8.1	10.3

단위: 분, %

[표 6] 주말 맞벌이 여부별 생활시간

단위: 분, %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맞벌이	남편	유급	390.2	305.7	258.5	205.1	198.1
		가사	29.3	42.8	52.7	67.8	82.1
		돌봄	35.2	47.8	42.0	47.4	49.9
	부인	유급	256.6	181.9	173.5	98.9	94.0
		가사	202.6	200.7	218.0	219.8	218.3
		돌봄	105.2	122.9	83.2	87.8	77.9
	남편무급노동분담율		15.7	19.5	20.7	24.3	27.5
비맞벌이	남편	유급	333.7	262.9	214.5	181.1	152.6
		가사	29.9	39.9	53.6	67.3	83.9
		돌봄	43.6	54.0	62.4	72.4	75.2
	부인	유급	15.0	12.2	7.3	6.3	10.2
		가사	268.2	244.5	257.8	250.5	239.0
		돌봄	183.4	197.5	165.0	156.6	144.7
	남편무급노동분담율		12.4	15.7	19.1	22.6	26.5

교육수준별(남성 기준) 생활시간을 비교해보면 평일([표 7])에는 2014년까지 대학이상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고졸이하 남성에 비해 더 길었으나 2019년 약간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대학이상 남편의 돌봄노동시간이 미미하게 길어졌다. 고졸이하 남성의 부인은 대학이상 남성의 부인보다 대체적으로 모든 조사연도에 유급노동시간이 길고, 가사노동시간도 상대적으로 길고, 돌봄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남편무급노동분담율은 교육수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주말에는([표 8]) 남편의 교육수준별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대학이상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가사·돌봄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모두 길었다. 특히 돌봄노동시간이 고졸이하 남성의 2배 가까이로 나타났다. 남편무급노동분담율도 대학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조사연도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이 주말에 무급노동 시간배분을 벌충하는 패턴이 뚜렷해지고 있었다. 주말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평일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7] 평일 남편 교육수준별 생활시간

단위: 분, %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대학 이상	남편	유급	561.0	537.6	524.6	549.5	537.1
		가사	14.3	15.4	19.0	19.4	27.4
		돌봄	24.5	26.9	32.1	32.6	32.9
	부인	유급	142.3	178.8	199.5	190.1	215.1
		가사	244.8	220.1	205.9	206.8	191.4
		돌봄	193.7	173.7	173.3	181.7	162.4
	남편무급노동분담율		8.4	10.3	12.4	11.9	15.9
고졸 이하	남편	유급	540.4	536.3	521.2	540.5	538.0
		가사	14.7	15.8	22.4	20.1	26.3
		돌봄	26.9	21.6	23.5	21.8	25.2
	부인	유급	149.9	196.0	238.1	224.8	247.1
		가사	249.5	231.3	212.4	217.9	200.2
		돌봄	177.5	148.5	129.9	124.7	111.9
	남편무급노동분담율		8.6	8.9	11.5	10.8	14.6

[표 8] 주말 남편 교육수준별 생활시간

단위: 분, %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대학 이상	남편	유급	312.2	240.0	195.7	166.5	147.9
		가사	36.4	46.5	60.8	75.3	89.7
		돌봄	46.2	58.7	65.7	68.8	70.2
	부인	유급	75.8	57.5	62.8	43.6	46.9
		가사	234.2	225.3	238.1	232.6	225.9
		돌봄	162.0	176.8	141.2	135.0	116.1
	남편무급노동분담율		15.1	18.6	22.2	25.3	29.2
고졸 이하	남편	유급	366.4	321.9	287.3	250.4	265.6
		가사	27.5	34.7	43.8	50.3	62.1
		돌봄	38.9	43.7	36.1	41.2	36.0
	부인	유급	106.8	94.0	118.2	72.3	82.3
		가사	248.7	231.8	238.2	239.4	232.9
		돌봄	154.2	162.7	106.6	96.1	89.9
	남편무급노동분담율		12.5	15.3	16.9	19.5	20.7

평일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를 비교해보면(남편 기준) [표 9]와 같다. 청년세대 남성의 유급 노동시간이 중장년세대보다 약간 길고 가사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돌봄노동시간

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노동시간분담율은 청년세대가 중장년세대 미미하게 높는데 이는 청년세대의 돌봄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주말, 청년세대 무급노동분담율이 증가하는 양상에서도 확인된다. 청년세대 남성의 부인은 중장년세대 남성의 부인보다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돌봄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었다. 주말, 청년세대의 경우 평일에 부족한 가사노동·돌봄시간을 벌충하고 있는 패턴이 강하게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모두 중장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분담율도 전반적으로 높으며 2009년 이후 이런 경향은 보다 확고한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10).

[표 9] 평일 세대별 생활시간

단위: 분, %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청년 세대	남편	유급	552.9	545.0	521.2	559.9	545.2
		가사	14.4	14.3	20.7	20.0	26.1
		돌봄	26.2	29.6	41.6	40.9	48.0
	부인	유급	143.9	151.6	150.4	147.0	184.0
		가사	244.3	217.8	208.5	203.6	178.5
		돌봄	190.9	205.3	231.0	237.3	231.2
	남편무급노동분담율		8.8	10.1	13.0	12.5	16.4
중장년 세대	남편	유급	525.4	523.9	526.0	536.8	533.5
		가사	15.4	17.7	20.2	19.2	27.5
		돌봄	24.1	15.6	16.6	20.0	21.7
	부인	유급	163.1	245.3	273.4	246.0	244.5
		가사	266.6	238.2	209.1	214.4	201.8
		돌봄	145.3	89.8	87.6	105.6	106.2
	남편무급노동분담율		8.5	8.9	11.1	10.9	15.1

[표 10] 주말 세대별 생활시간

단위: 분, %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청년 세대	남편	유급	349.9	278.4	230.3	199.6	168.6
		가사	30.1	41.0	54.5	72.0	88.5
		돌봄	42.3	53.8	75.6	86.5	103.2
	부인	유급	89.8	62.8	51.5	32.7	40.6
		가사	244.5	226.7	229.6	223.5	203.8
		돌봄	163.5	180.3	183.4	182.7	174.8
	무급노동분담율		13.7	17.2	22.1	25.5	31.5
중장년 세대	남편	유급	374.4	279.5	240.9	187.5	180.8
		가사	27.2	40.7	51.9	64.1	80.3
		돌봄	31.1	42.7	29.4	39.2	41.8
	부인	유급	157.0	125.2	123.0	67.0	61.5
		가사	249.6	235.4	247.8	244.9	239.6
		돌봄	112.0	126.4	67.5	75.3	77.6
	무급노동분담율		12.5	17.1	17.6	21.8	24.9

구분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무급노동분담율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자원 요인	남편 교육(대학이상=1)	-3.86	2.42	2.54	2.39	-0.02	0.58
	부인 교육(대학이상=1)	9.82***	2.44	9.11***	2.36	2.29***	0.57
	남편 소득	-0.07***	0.01	-0.06***	0.01	-0.02***	0.00
	부인 소득	0.00	0.02	0.04**	0.01	0.02***	0.00
	남편 상대소득	-18.84*	8.71	2.90	8.18	-5.12**	0.03

시간 요인	남편 주당근무시간	-1.10***	0.08	-1.00***	0.07	-0.30***	0.02
	부인 주당근무시간	0.37***	0.06	0.26***	0.06	0.23***	0.01
	미취학자녀(있음=1)	6.60*	2.77	70.52***	3.00	8.66***	0.66
젠더 요인	남편 성역할태도	7.67***	1.43	8.06***	1.33	2.61***	0.33
	부인 성역할태도	0.88	1.47	0.65	1.38	-0.09	0.35
적응 지체 요인	남편세대(청년세대=1)	-1.84	2.91	11.62***	2.66	1.59*	0.66
	부인세대(청년세대=1)	2.00	2.95	1.14	2.93	0.38	0.73
	조사연도(2009=1)	20.66***	3.07	20.95***	2.96	5.07***	0.71
	조사연도(2014=1)	21.41***	3.18	25.97***	2.92	5.65***	0.72
	조사연도(2019=1)	38.08***	3.55	33.42***	3.35	10.19***	0.85
상수		-0.31	9.06	-59.74***	8.58	3.88*	2.71
F(sig)		86.47	1.79	84.28	1.60	22.38	0.26
N		11,357		11,357		11,345	
left-censored observations		7,201		6,447		4,635	
uncensored observations		4,156		4,910		6,711	

*p<.05, **p<.01, ***p<.001 주) 더미(고졸이하=0, 미취학자녀없음=0, 중장년세대=0, 2004년=0)

평일에는 시간가용요인은 가사·돌봄노동시간과 무급노동분담율에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원요인 중 부인 교육수준, 남편소득, 부인소득, 남편상대소득이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젠더요인 중에서는 남편 성역할태도만이 가사·돌봄노동시간과 무급노동분담율에 유의하였다. 적응지체요인 중 남편세대가 청년인 경우 돌봄시간과 무급노동분담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004년에 비해 모든 조사연도에 남편의 가사·돌봄노동시간과 무급노동분담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주말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무급노동분담율에 대한 토빗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가사노동시간에는 남편 교육수준(+), 부인 교육수준(+), 부인소득(+), 남편 주당근무시간(-), 남편 성역할태도(+), 2004년에 비해 2009(+), 2014(+), 2019(+), 미취학자녀유무(있음, +), 남편 세대(청년, +), 부인세대(청년, +), 2009(+), 2014(+), 2019(+), 2019(+)) 등으로 확인되었다. 주말 남편의 무급노동분담율에 유의한 변인은 남편 교육수준(+), 부인 교육수준(+), 부인소득(+), 남편 주당근무시간(-), 부인 주당근무시간(+), 미취학자녀유무(있음, +), 남편 성역할태도(+), 부인세대(청년, +), 2004년에 비해 2009(+), 2014(+), 2019(+))이 유의하였다.

[표 12] 주말 남편 무급노동시간량과 무급노동분담율 토빗회귀분석

구분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무급노동분담율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자원 요인	남편 교육(대학이상=1)	18.57***	3.89	20.92***	3.97	3.37***	0.75
	부인 교육(대학이상=1)	16.58***	3.87	13.21**	3.96	3.26***	0.74
	남편 소득	0.01	0.01	0.01	0.01	0.00	0.00
	부인 소득	0.07**	0.03	0.03	0.03	0.01*	0.00
	남편 상대소득	10.41	12.77	5.07	14.48	0.83	2.63
시간 요인	남편 주당근무시간	-1.10***	0.11	-0.93***	0.11	-0.27***	0.02
	부인 주당근무시간	0.05	0.09	-0.11	0.10	0.12***	0.02
	미취학자녀(있음=1)	5.85	4.81	107.81***	5.07	7.15***	0.88
젠더 요인	남편 성역할태도	10.30***	2.17	4.42*	2.22	2.21***	0.40
	부인 성역할태도	1.24	2.31	1.40	2.37	-0.20	0.42
적응 지체 요인	남편세대(청년세대=1)	-0.38	4.55	14.39**	4.65	0.87	0.82
	부인세대(청년세대=1)	6.26	4.92	17.02**	5.24	2.62***	0.93
	조사연도(2009=1)	23.04***	4.94	33.72***	4.98	5.25***	0.88
	조사연도(2014=1)	31.15***	5.30	45.70***	5.17	8.05***	0.93
	조사연도(2019=1)	45.70***	6.10	53.11***	6.08	10.99***	1.08
상수		-21.33	13.64	-109.43***	15.69	5.18	2.83
F(sig)		120.33	1.85	118.17	2.17	22.80	0.26
N		6,950		5,950		6,950	
left-censored observations		2,703		3,101		1,574	
uncensored observations		4,247		3,849		5,376	

*p<.05, **p<.01, ***p<.001 주: 더미(고졸이하=0, 미취학자녀없음=0, 중장년세대=0, 2004년=0)

주말은 일반적으로 시간사용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한 변인의 양상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말에는 남편소득의 유의성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남편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남편 주당근무시간의 영향력은 주말까지 이어졌고, 부인 주당근무시간의 영향력은 주말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편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은 주말에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적응지체요인도 상당히 유의하여 2004년 이후 조사연도에 가사·돌봄·분담율이 증가하고 남편이 청년세대인 경우, 부인이 청년세대인 경우 돌봄시간이 증가하고, 부인이 청년인 경우 무급노동분담율이 증가하였다.

(2) 부인 무급노동시간량의 영향요인

평일, 부인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 무급노동분담율에 대한 토빗회귀분석결과는 [표 13]과 같다. 평일 부인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변인은 부인 교육수준(대학이상, -), 부인소득

(-), 남편 상대소득(+)과 본인 주당근무시간(-), 미취학자녀(있음, -), 남편 성역할태도(-), 남편 세대(청년, -), 부인세대(청년, -), 조사연도(2009년(-), 2014년(-), 2019년(-)) 으로 확인되었다. 돌봄노동시간에 유의한 변인은 남편 교육수준(+), 부인 교육수준(+), 부인소득(-), 남편상대소득(+)와 남편 주당근무시간(+), 부인 주당근무시간(-), 미취학자녀유무(있음, +), 부인 성역할태도(+), 남편세대(청년, +), 부인세대(청년, +), 조사연도(2009년(+), 2014년(+), 2019년(+)) 등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평일 부인 무급노동시간량 토빗회귀분석

구분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자원 요인	남편 교육(대학이상=1)	-3.34	2.27	12.09***	2.61
	부인 교육(대학이상=1)	-9.62***	2.28	15.07***	2.64
	남편 소득	0.01	0.01	-0.01	0.01
	부인 소득	-0.16***	0.01	-0.05**	0.02
	남편 상대소득	31.93***	8.01	43.76***	8.66
시간 요인	남편 주당근무시간	0.02	0.07	0.51***	0.07
	부인 주당근무시간	-2.31***	0.06	-2.24***	0.07
	미취학자녀(있음=1)	-23.89***	2.60	122.84***	2.75
젠더 요인	남편 성역할태도	-5.41***	1.25	-0.98	1.46
	부인 성역할태도	0.92	1.32	3.21*	1.53
적응 지체 요인	남편세대(청년세대=1)	-16.00***	2.64	18.98***	3.00
	부인세대(청년세대=1)	-11.26***	2.73	23.37***	2.94
	조사연도(2009=1)	-11.91***	2.79	25.24***	3.22
	조사연도(2014=1)	-13.06***	2.78	28.51***	3.23
	조사연도(2019=1)	-18.33***	3.27	34.54***	3.79
상수		299.02***	8.12	1.82	8.84
F(sig)		93.88	0.79	108.16	1.08
N		11,357		11,357	
left-censored observations		141		1,189	
uncensored observations		11,216		10,168	

*p<.05, **p<.01, ***p<.001 주:더미(고졸이하=0, 미취학자녀없음=0, 중장년세대=0, 2004년=0)

평일 부인의 가사·돌봄시간에 시간가용요인이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났다. 단, 남편 주당근무시간은 가사시간에 유의하지 않았다. 자원요인 중 자신의 소득과 남편 상대소득은 부인의 가사·돌봄노동시간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경우 부인소득이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 자신의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도 남성

과 다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인 성역할태도는 돌봄시간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적응 지체 요인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말 부인의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에 대한 토빗회귀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주말 부인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변인을 살펴보면 우선 자원요인은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부인 주당근무시간(-), 미취학자녀유무(있음, -), 남편 성역할태도(-), 부인 성역할태도(+), 남편 세대(청년, -) 부인세대(청년, -) 조사연도(2014년(-), 2019년(-)) 등으로 확인되었다. 주말 부인 돌봄노동시간에 유의한 변인은 부인 교육수준(대학이상, +), 남편소득(-), 남편 주당근무시간(+), 부인 주당근무시간(-), 미취학자녀유무(있음, +), 남편세대(청년, +) 부인세대(청년, +), 조사연도(2009년(+), 2014년(+), 2019년(+)) 등으로 확인되었다. 젠더이데올로기요인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14] 주말 부인 무급노동시간량 토빗회귀분석

구분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자원 요인	남편 교육(대학이상=1)	-1.02	3.54	6.44	3.63
	부인 교육(대학이상=1)	-5.98	3.55	13.69***	3.62
	남편 소득	0.01	0.01	-0.04**	0.01
	부인 소득	0.03	0.02	0.03	0.02
	남편 상대소득	14.57	11.94	-8.19	12.61
시간 요인	남편 주당근무시간	-0.02	0.10	0.68***	0.11
	부인 주당근무시간	-1.15***	0.09	-1.68***	0.09
	미취학자녀(있음=1)	-21.85***	4.50	125.23***	4.28
젠더 요인	남편 성역할태도	-7.22***	2.00	0.01	2.12
	부인 성역할태도	6.44**	2.10	3.22	2.21
적응 지체 요인	남편세대(청년세대=1)	-7.93	4.16	21.97***	4.31
	부인세대(청년세대=1)	-17.72***	4.72	18.19***	4.31
	조사연도(2009=1)	-0.63	4.24	12.35***	4.66
	조사연도(2014=1)	-10.76**	4.61	10.48**	4.92
	조사연도(2019=1)	-21.92***	5.34	12.93*	5.79
상수		279.74***	12.74	-3.23*	13.04
F(sig)		117.18	1.08	118.66	1.50
N		6,950		6,891	
left-censored observations		69		1,108	
uncensored observations		6,881		5,842	

*p<.05, **p<.01, ***p<.001 주: 더미(고졸이하=0, 미취학자녀없음=0, 중장년세대=0, 2004년=0)

평일과 주말을 비교해보면 자원요인 변인들은 주말 가사시간에는 모두 유의성이 사라졌고 돌봄시간에 부인 교육수준, 남편소득만이 유의했다. 시간가용 관련 변인은 주말에도 대부분 유의하였다. 남편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주말 부인의 가사노동은 줄어들지만, 부인의 성역할 태도가 평등할수록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도 특이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주말에 적응지체요인 중 대부분의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본 연구는 1999년~2019년 20년 동안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유급-무급노동시간의 변화와 무급노동분담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남성 유급노동시간의 변화가 미미한 상황에서도 남편의 가사·돌봄시간이 증가하는 추세와 분담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남성 무급노동시간분담율은 평일의 경우 1999년 8.5%에서 2019년 15.6%로, 주말에는 1999년 13.5%에서 2019년 27.1%로 증가하였다. 유급노동시간의 경직성이 강한 평일에는 가사·돌봄시간량과 분담율이 낮지만 주말에는 이를 벌충하고자 하는 남편들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맞벌이남성, 대학이상 남성, 청년세대 남성이 주말에 무급노동시간과 분담율의 불평등한 분배를 벌충하고자 하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맞벌이 남성은 평일에도 분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1999년 11.7%에서 2019년 20.3%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외벌이 남편도 주말에는 가사시간·돌봄시간량이 증가하고 2009년 이후 무급노동시간분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가용이 가능하다면 무급노동분담을 위한 남편들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인의 경우 평일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주말 유급노동시간은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 모두 가사·돌봄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고졸이하, 중장년세대인 경우 유급노동시간은 길고 상대적으로 돌봄·가사시간은 짧았다.

이러한 결과를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25개 국가에서 1998년 남성무급노동분담율이 29.4%에서 2012년 32.5%로 3.1%p 증가했다는 결과(Charmes, 2019: 128) 혹은 유럽과 미국에서 무급노동분담율이 정체하고 있다는 결과(Sullivan et al., 2018)와 비교하면 우리사회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속도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가능성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토빗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미성년 자녀를 둔 남편의 경우 평일에는 전반적으로 자원요인보다 시간가용요인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상대적 자원요인도 부분적으로

영향력이 확인되어 부족한 시간가용성 안에서 상대적 자원 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의 평등한 성역할태도는 가사·돌봄노동시간과 분담율에 정적 영향요인이었으나 부인의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시간사용 패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청년세대는 중장년세대에 비해 돌봄노동시간이 길었으며 2004년에 비해 2009년, 2014년, 2019년 모두 가사·돌봄노동시간량이 증가하고 분담율이 증가하였다.

주말 남편의 무급시간량과 무급노동분담율의 영향요인 중 자원요인은 평일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자원요인 중 전반적으로 남편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소득변인의 유의성은 전반적으로 사라졌다. 이는 남편 교육수준이 상대적 자원가설요인보다 계층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시간가용요인과 젠더이데올로기요인, 적응지체요인은 평일과 비슷하게 작용하였다.

부인의 경우, 평일에는 전반적으로 시간가용요인이 가사·돌봄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자원요인 중 본인 교육수준, 본인 소득, 남편 상대소득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편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부인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본인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돌봄노동시간은 증가하였다. 또한 남편이 청년세대인 경우 가사노동은 줄고, 돌봄 노동은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 비해 그 이후 조사연도에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돌봄노동시간은 증가하였다.

주말 부인의 무급노동시간에서 자원요인은 평일과 달리 유의성이 전반적으로 사라졌으나 본인교육수준과 남편소득수준이 돌봄시간에만 영향을 미쳤다. 시간가용요인은 전반적으로 평일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고 젠더요인 중 부인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 분배에서 유급노동시간(주당 근무시간)의 영향력이 확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년 사이 남성의 시장노동시간(주당 근무시간) 감소폭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사·돌봄노동시간량과 분담율이 증가한 것에 주목이 필요하다. 또한 주중 시장노동으로 인한 불평등한 분배를 주말에 벌충하고자 하는 추세가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세계 젠더불평등 양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급노동시간으로 인한 시간가용 제한성은 평일, 남성 무급노동시간분담을 개선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18년 노동법 개정으로 실시된 '주 52시간 상한 제한'은 가구 수준에서 남편과 부인의 근로시간 격차를 줄여 시간 갈등을 완화하고 일가족양립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이진우·김종예, 2021). 주간 표준 노동시간 감축에 집중한 유럽 국가에서 성평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gart & Mutari, 2000). 따라서 법정노동시간을 감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이것은 향후 무급시간에서의 젠더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둘째, 여성 유급노동시장 참여가 이중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성의 성역할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남성의 성역할태도는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전통적이며 이는 전 세계적 경향으로 부부(커플)간의 무급노동시간 분배에서 여성파트너의 성역할태도보다 남성파트너의 성역할태도가 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llivan et al., 2018). 이는 부부 교섭에서 주도권을 지고 있는 남성의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반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남성의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초중등 및 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에 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확대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체계에서도 성평등교육과 성인지교육이 기초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의 경험은 성역할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무급노동시간 참여를 증가시킨다는 결과(Evertsson, Boye, & Erman, 2018)를 고려할 때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확산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성역할태도는 남성의 시간패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길고(주말), 돌봄노동시간(주중)이 길어졌다. 이는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평등할 때 남성파트너와 유기적인 시간분배를 통해 일과 생활을 양립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는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삶, 파트너와의 유기적인 삶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평등한 성역할태도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유의미성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부인 주당근무시간이 남편의 가사·돌봄시간과 무급노동분담률에 모두 유의한 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부인 소득은 남편 가사·돌봄·분담율에 영향력이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부인 주당근무시간은 모두 유의하여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성평등한 시간분배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가족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M자 곡선이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종합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성별 차별구조 및 직업교육훈련의 제도적 한계에 제도적 보충과 정합성이 요청된다.

다섯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인의 경우 2004년에 비해 가사노동을 줄여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돌봄노동은 2004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경우도 돌봄시간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급노동 전체를 남성과 여성이 기피하는 노동으로 가정하는 자원가설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사회화 혹은 시장화, 외주화 양상 및 인식의 변화에 대한 심화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의 영향력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필요하다. 남녀 모두 주말에는 자원요인 중 소득의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약해지고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남성(남편)과 여성(부인)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 때 돌봄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일에는 한정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자원을 두고 교섭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말의 경우 행위자로서의 주도성 혹은 의지가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말,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교섭요인 보다는 계층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사시간과 돌봄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가사시간과 돌봄시간에서의 계층화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남편과 부인의 무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분담율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제도·정책적 변화가 각 시기별로 개인의 삶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생활시간조사 축적과 함께 우리 사회 제도·정책의 영향을 확인하는 다층분석이 확대되어 정책과 제도,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부의 시간배분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다르게 작동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배분이 계층별(외주화 포함), 세대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심화 연구들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소영, 진미정. (2016).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가정과 삶의질 연구. 34(5).1-19.
- 김수정,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 사회학. 41(2). 147-174.
- 김진옥, 권진. (2017). 한국 기혼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에 대한 연구: 생활시간조사 1999년~ 2014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조사연구. (55).181-215.
- 송다영. (2014). 남녀 직장인의 무급노동시간 격차와 일가족양립 정책에서의 함의: 서울시 직장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3). 169-206.
- 안미영. (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112). 13-40.
- 윤자영. (2010). 모(母) 시간 배분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33(2). 27-52.
- 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이진우, 금중예. (2021).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구 내 부부의 노동시간 격차에 미친 영향. 정부 학연구. 27(1). 219-247.
- 조성호. (2016).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9(1). 57-79.
- 주은선. (2014). 노동인가, 돌봄인가, 여가인가?-전일제 임노동자 맞벌이 부모의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영향과 학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45(3). 5-34.
- 허수연, 김한성. (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29.
- 통계청, 2000, 2005, 2010, 2015, 2020, 생활시간조사보고서, <https://kostat.go.kr.kr>.
- Aassve, A., Fuochi, G. & Mencarini, L., 2014, Desperate housework: Relative resources, time availability, economic dependency, and gender ideology across Europe, Journal of Family Issues, 35(8). 1000-1022.
- Berker, S. F., 1985, The gender factory: the apportionment of work in American households, NY: Plenum Press.
-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Bianchi, S. M., Robinson, J. P. & Milkie, M. A., 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Y: Russell Sage Foundation
- Bianchi, S. M., Sayer, L. C., Milkie, M. A. & Robinson, J. P., 2012, Housework: Who did, does or will do it, and how much does it matter? Social Forces, 91(1), 55-63.
- Bonke, J. & Esping-andersen, G., 2009, Parental investments in children: How educational homogamy and bargaining affect time alloc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0(20), 1-13.
- Brines, J., 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 Carlson, D. L., & Lynch, J. L., 2013, Housework: Cause and consequence of gender ideology?. Social

- Science Research, *42*(6), 1505-1518.
- Charmes, J., 2019, The Unpaid Care Work and the Labour Market. An Analysis of Time Use Data Based on the Latest World Compilation of Time-use Survey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ILO.
- Chesley, N. & Flood, S., 2017, Signs of change? At-home and breadwinner parent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9*(2), 511-534.
- Chevalier, A. & Viitanen, T. K., 2002, The causality between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availability of childcare. *Applied economics letters*, *9*(14), 915-918.
-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08-1233.
- Craig, L., 2006,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and Society*, *20*(2), 259-281.
- Craig, L. & Powell, A. (2011). Non-standard work schedules, work-family balance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childcare.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5*(2), 274-291.
- Dechant, A., & Schulz, F., 2014, Scenarios for the equal division of paid and unpaid work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Germany.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 *39*(3).
- Davis, S. N., 2007, Gender ideology construction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Social Science Research*, *36*(3), 1021-1041.
- Davis, S. N. & Greenstein, T. N., 2009, Gender ideology: Components, predi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87-105.
-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Polity Press.
- Esping-Andersen, G., & Schmitt, C., 2020, Multi-dimensional couple bargaining and housework allocation, *Acta Sociologica*, *63*(1), 3-22.
- Evertsson, M. & Nermo, M., 2007, Changing resource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A longitudinal study of Swedish coupl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4), 455-470.
- Evertsson, M., 2014, Gender ideology and the sharing of housework and child care in Sweden, *Journal of Family Issues*, *35*(7), 927-949.
- Fuwa, M.,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751-767.
- Geist, C., 2005, The welfare state and the home: Regime differences in the domestic division of labour,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1), 23-41.
- Godbey, G. & Robinson, J., 1997, The increasing prospects for leisure, *Parks and Recreation* (Arlington), *32*(6), 74-82.
- Greenstein, T.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322-335.
- Grunow, D., Schulz, F., & Blossfeld, H. P., 2007, Was erklärt die Traditionalisierungsprozesse häuslicher Arbeitsteilung im Eheverlauf: soziale Normen oder ökonomische Ressourcen?/ What Explains the Process of Traditionalization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Norms or Economic Resources?, *Zeitschrift für Soziologie*, *36*(3), 162-181

- Hofferth, S. & Collins, N., 2000, Child care and employment turnover,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9(4), 357-395.
- Hook, J. L., 2006, Care in context: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639-660.
- Jaumotte, F., 2003,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past trends and main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76, 1-6.
- Kamo, Y., 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2), 177-200.
- Kan, M. Y., & Gershuny, J., 2008, Gender & time use over the life course. Changing relationships, 162-176. Brynin, M. & Ermisch, J.(eds), *Changing Relationships*, London: Routledge.
- Kan, M. Y., Sullivan, O. & Gershuny, J., 2011, Gender convergence in domestic work: Discerning the effect of interaction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from large-scale data. *Sociology*, 45(2), 234-251.
- Killewald, A., & Gough, M., 2010, Money isn't everything: Wives' earnings and housework time, *Social Science Research*, 39(6), 987-1003.
- Kühhirt, M., 2012, Childbirth & the long-term division of labour within couples: How do substitution, bargaining power, and norms affect parents' time allocation in West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8(5), 565-582.
- Lachance-Grzela, M. & Bouchard, G., 2010, Why do women do the lion's share of housework? A decade of research, *Sex Roles*, 63(11), 767-780.
- Lewin-Epstein, N., Stier, H., & Braun, M., 200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Germany and Isra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5), 1147-1164.
- Long, J. S.,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andel, H. & Semyonov, M., 2006, A welfare state paradox: State interventions and women's employment opportunities in 22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1(6), 1910-1949.
- Morgan, K. J. & Zippel, K., 2003, Paid to care: The origins and effects of care leave policies in Western Europe,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10(1), 49-85.
- Nitsche, N. & Grunow, D., 2016, Housework over the course of relationships: Gender ideology, resource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from a growth curve perspectiv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29, 80-94.
- Ondrich, J., Spiess, C. K., Yang, Q. & Wagner, G. G., 2003, The liberalization of maternity leave policy and the return to work after childbirth in Germany,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1), 77-110.
- Powell, A. & Craig, L., 2015, Gender differences in working at home & time use patterns: Evidence from Australia,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9(4), 571-589.
- Raley, S., Bianchi, S. M. & Wang, W., 2012, When do fathers care? Mothers' economic contribution and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5), 1422-1459.
- Sanberg, J. F. & Hofferth, S. L., 2005, Changes in children's time with parents: A correction, *Demography*,

42(2). 391-395.

- Sayer, L. C., 2005, Gender, time and inequality: Trends in women's and men's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Social Forces*, 84(1), 285-303.
- Sayer, L. C., & Gornick, J. C., 2012, Cross-national variation in the influence of employment hours on child care tim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8(4), 421-442.
- Stier, H. & Lewin-Epstein, N., 2000, Women's part-time employment and gender inequality in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Issues*, 21(3), 390-410.
- Sullivan, O., Gershuny, J. & Robinson, J. P., 2018, Stalled or uneven gender revolution? A long-term procedur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why change is slow, *Journal of Family Theory and Review*, 10(1), 263-279.
- Treas, J. & Drobnič, S. (eds.), 2010, *Dividing the Domestic: Men, Women, and Household Work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Changes and Influencing Factors in Paid-Unpaid Work Hours in Couples with Minor Children, 1999-2019

Hye Jung Lee* · Da Young Song**

This study uses the 1st (1999) to 5th (2019) KTUS(Korea Time use survey) to examine the changes in paid working hours and unpaid working hours of husbands and wives of couples with underage children, and the amount of unpaid working hour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unpaid labor share were analyzed.

Weekday paid work hours of husbands with minor children decreased slowly, while weekend paid work hours decreased rapidly from 2014. Unpaid work hours on weekdays increased slowly, but increased rapidly on weekends. In particular, the share of unpaid hours on weekdays increased from 8.5% in 1999 to 15.6% in 2019, and on weekends it increased to 15.6% to 27.1%, a significant change. It can be seen as making up for the unequal distribution of unpaid hours on weekdays on weekends. For wives with minor children, paid work hours on weekdays increased, while unpaid, housework, care hours decreased.

Tobit regression analysis showed. On weekdays for husbands, time availability factors were all significant at housework hours, caregiving hours and unpaid labor sharing rate. And some variables in the resource factor, gender ideology factor, and adaptation delay factor were significant. On weekends, among the resource factors, the overall significance of the income variable disappeared and the influence of the husband's education level was confirmed.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husband's paid labor hours and gender role attitudes were consistent.

For wives' weekday housework and caregiving hours, some variables in the resource factor, time availability factor, gender ideology factor, and adaptation delay factor were significant. The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 influenced the housework time and the wife's gender role attitude influenced the caregiving hours. On weekends, the significance of resource factors for housework hours disappeared, and only wife's education level and husband's income were significant for caregiving time.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s and own gender role attitudes influenced housework hours.

Based on the findings, we analyze the causes of gender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paid and unpaid labor in life world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Keywords: distribution of unpaid work hours, korea time use survey, share rate of unpaid work, gender equality

◆ 2023. 1. 30. 접수 / 2023. 2. 23. 1차수정 / 2023. 3. 16. 게재확정

* Busan Labor Right Center (aha34@naver.com)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dsong@inu.ac.kr)